



제주지역

녹나무

## 제주생활 타케 신부가 심은 녹나무

|      |              |      |                  |
|------|--------------|------|------------------|
| 📍    | 제주-13-2-8-12 | 📍    | 제주도 서귀포시 지장샘로 19 |
| 지정번호 | 제주-13-2-8-12 | 지정년도 | 1994             |
| 지정년도 | 1994         | 관리기관 | 서귀포              |
| 관리기관 | 서귀포          | 수령   | 238년             |
| 수령   | 238년         | 수고   | 19m              |
| 수고   | 19m          | 홍고둘레 | 4m(곧은 줄기)        |
| 홍고둘레 | 4m(곧은 줄기)    |      |                  |

서흥리 지정 '서흥팔경'의 하나인 보호수(제주-13-2-8-12) 녹나무는 제주도의 3번째 성당인 홍로본당이 있던 곳의 앞뜰에 자라고 있다. 녹나무의 나이는 238년으로 추정된다. 나무높이는 19m, 가슴높이둘레(곧은 줄기)는 400cm 정도이다. 원줄기는 하늘 높이 자라고 있다. 생육상태는 양호하다. 전승하는 이야기는 에밀 타케(Emile J. Taquet, 한국명 엄택기, 1873~1952) 신부와 관련하고 있다. 그 전래 중에는 천주교 복자수도원(현 면형의 집) 앞뜰에 있는 녹나무를 에밀 타케 신부가 심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녹나무를 '에밀 타케 녹나무'라고 부르고 있다. 타케 신부가 성당 건물을 짓고 정원을 만들 때 한라산 산록 야산지대에 자생하는 녹나무 중관상이 좋은 수종을 선택하여 기념식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면형의 집은 원래 1902년 7월 타케 신부가 설립하였던 홍로본당이 있었다. '면형麵形'은 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의 영성 용어인 '면형무아麵形無我'에서 온 것으로 성체를 뜻한다. 이 성당은 1937년에 현재의 서귀포 성당으로 이전하여 공소가 되었다가 한국복자수도원에서 피정센터로 운영하고 있다. 또 다른 이야기도 있다.

면형의 집은 6·25한국전쟁 때 서울에 있던 대신학교 학생들의 피난처가 되기도 하였는데, 당시 신학생이었던 김수환 추기경 등 신학생들이 야간에 무장대의 습격 총소리를 듣고 이 녹나무에 올라가 피난하였다. 에밀 타케 신부는 프랑스 출신으로 24세에 사제 서품을 받고 한 달 만에 한국으로 파견되어 1898년 서울에 도착하였고, 1902년 서귀포 하능성당 주임신부로 부임하면서 제주도와 인연을 맺었다. 타케 신부는 1952년 선종할 때까지 고향에 돌아가지도 않은 채 제주도에서 선교사업과 식물채집(선교자금이용 목적)에만 몰두하였다. 타케 신부는 1902년에 집 한 채를 사서 이 집을 사제관과 성당으로 개조한 뒤 1915년까지 사목하면서 본당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타케 신부는 식물 채집에 관심이 많아 왕벚나무 등 7,000종이 넘는 여러 식물을 유럽학계에 알렸고, 일본의 포리 신부에게 온주밀감 14그루를 1911년에 받아서 서흥동 주민들에게 재배를 장려하였다. 최초 도입 감귤(온주밀감) 중 마지막 한그루는 108년을 살고 2019년에 고사하여 면형의 집 입구에 전시되고 있다.